

일본경제리뷰 No.19_11

< Special Issue >

일본 GDP,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, 성장률은 둔화

Contents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<Special Issue> | 1 |
| I. 한일경제동향 | 4 |
| II. 이달의 일본경제 | |
| 1. 경기·무역 동향 | 6 |
| 2. 경제정책 | 10 |
| 3. 기업전략 | 15 |
| 4. 산업기술 | 19 |
| III. KJCF&KJE News | 25 |
| IV. 이달의 추천자료 | 27 |
| V. 한일경제지표 | 28 |



< Special Issue > 일본의 GDP,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, 성장률은 둔화

□ 2019년 3분기 실질 GDP성장률 연률 0.2%로 둔화

- 일본 내각부가 11월 1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(7-9월) 실질 GDP성장률(속보치)은 전기대비 0.1%, 연률 환산으로는 0.2%
 - 2019년 10월 소비세인상을 앞둔 가수요로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했으나 증가률은 소폭에 머무름
 - 방일외국인의 소비감소 영향도 있어, 성장률은 1%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둔화됨

□ 민간소비는 소비세인상으로 인한 가수요의 영향으로 증가

- GDP의 과반을 전하는 개인소비는 전기 대비 0.4% 증가,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함
 - 10월의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화장품과 퍼스널컴퓨터, TV 등의 가수요가 발생, 소비 전체를 지탱해 주었음
 - 이와 같이 견조했으나, 전회(2014년 1-3월기)소비세 인상 전 2.0% 증가에 비하면 개인 소비는 부진함
 - 소비세경감세율과 무현금결제의 포인트 환원 등 정부의 가수요억제책 효과도 있었으나 7월의 장마와 8월의 태풍 등 기후불순의 악영향이 컸음

< 일본의 2019년 3분기(7-9월) 실질 GDP성장률 내역 >

| | 2019.7-9월 | 2019.4-6월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GDP (연률 환산) | 0.1 (0.2) | 0.4 (1.8) |
| 개인소비 | 0.4 | 0.6 |
| 주택투자 | 1.4 | 0.5 |
| 설비투자 | 0.9 | 1.2 |
| 민간재고 | -0.3 | -0.1 |
| 정부소비 | 0.5 | 1.2 |
| 공공투자 | 0.8 | 2.1 |
| 수출 | -0.7 | 0.5 |
| 수입 | 0.2 | 2.1 |

주: 전기비 %, 민간재고는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

- 현재 일본경제는 외수의 순풍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, 내수가 견인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음
 - 실제 2019년 7-9월기까지 내수는 4분기 연속 플러스
 - GDP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개인소비는 7-9월기까지 연률 1.4%로 비교적 높은 증가
-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화장품과 TV, 시계 등 10월 소비세 인상 전의 가수요로 보이는 품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일본 내각부는 통상의 소비와 구별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,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한 가수요가 7-9월기의 개인소비 규모를 일정 정도 끌어올린 것은 틀림없음
 - 그렇다고 5월의 연호변경(헤이세이 → 레이와)에 따른 10일 연휴 등의 특수가 있었던 4-6월기(연률 2.4%증가)에 비하면 증가율은 둔한 편이었음
- 10월부터 소비세인상에 일본정부는 인상 전 가수요를 줄이고 인상 후 반동감소도 억제하기 위해 무현금(캐시리스) 결제 포인트 환원 등의 대책을 강구했음
 - 개인소비증가가 전회 소비세 인상 전(2014년 1월-3월기 8.1%)에 비하여 소폭인 점은 일본정부의 의도대로임
 - 한편, 민간 경제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소비의 기초 자체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

□ 설비투자는 생력화 투자, 디지털투자의 호조로 증가

- 내수 중 또 하나의 기둥인 설비투자는 0.9% 증가로, 4-6월기의 0.7%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음
 - 심각한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계속된 생력화와 디지털 대응을 위한 투자가 전조를 보임
 - 주택투자와 공공투자도 전조를 보여, 내수 전체로는 GDP를 0.2% 끌어올렸음

□ 수출은 상품수출 증가에도 서비스수출의 부진으로 감소

- 수출은 0.7% 감소, 2분기 연속 감소함. 서비스 수출이 4.4%나 감소함으로써 전체 수출을 끌어내렸음

- GDP의 계산상 서비스수출로 계상되는 방일외국인의 국내소비가 한일관계 등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임
- 상품수출은 0.3% 증가했으나, 자본재와 공작기계의 수출 부진으로 상반기 침체로부터 회복은 둔했음
- 수입은 가수요 등을 반영하여 0.2% 증가함
- 결과적으로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외수의 GDP기여도는 -0.2%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

□ 2019년도 GDP성장률 0.6%로 하향수정

- 한편, 일본은행이 발표한 경제물가정세 전망에서 2019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0.6%로 하향 수정됨
- 이는 세계경제의 감속 리스크를 반영한 것임.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원유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낮추었음. 물가안정 목표 2%에서 더 멀어짐
- 동 전망에서는 당면 세계경제의 감속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수요에 대한 파급은 한정적이라고 지적
- 구로다 총재는 2021년도까지의 전망기간을 통하여 경기의 확대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임
- 한편,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의 성장속도 회복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명기함
-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실질 GDP성장률 전망도 종래 예상보다 0.2%포인트 감소한 0.7% 및 0.1%포인트 감소한 1.0%로 각각 하향수정됨
- 생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의 2019년도 상승률은 0.3%포인트 감소한 0.7%로 하향수정. 2020년도는 0.2%포인트 감소한 1.1%. 2021년도는 0.1%포인트 감소한 1.5%로 낮추었음

□ 평가

- 2019년 3분기 일본경제는 한마디로 견인차의 부재에 따른 리스크에 외수도 침체되고 소비도 둔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

I. 한일 경제 동향

□ 對日 무역구조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-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한국의 對日 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, 부품,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
 - 對日 무역 흑자를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 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 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
 -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對日 통상정책의 핵심임
- 2018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5.1%,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10.2%로 2000년의 각각 11.9% 및 19.8%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수준임
 - 한편, 2000년-2108년 기간 중 일본의 對韓 수출 의존도는 6.4%에서 7.1%로 높아진 반면, 對韓 수입 의존도는 5.4%에서 4.3%로 낮아짐

□ '19.10월 중 對日 무역

- '19. 10월 對日 무역 적자는 1,436백만 달러로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적자폭이 축소
- 對日 수출은 2,380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2.5% 증가
 - 10대 對日 수출 상품은 변함이 없으나 광물성연료 대신에 철강제품이 對日 수출 순위 1위 품목으로 올라선 가운데,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의 對日 수출 증가폭이 13.8%로 가장 컸음(지표 1)
 - 對日 수출 감소 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對日 수출 감소폭이 -12.2%로 가장 컸음

- 對日수입은 3,816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0.1% 감소
 - 10대 對日수입 품목 역시 변함이 없는 가운데, 모든 품목의 對日수입이 감소(지표 2)
 - 정밀기계의 對日수입 감소폭이 -12.0%로 가장 컸음

〈 2019년 10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〉

| | 2019.9월 | | | 2019.10월 | | | 2019.1-10월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
|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기비 |
| 對日수출 | 2,321 | -6.0 | 3.1 | 2,380 | -13.9 | 2.5 | 23,723 | -6.6 |
| 對日수입 | 3,821 | -8.6 | -1.7 | 3,816 | -23.3 | -0.1 | 40,123 | -12.8 |
| 무역수지 | -1,500 | -12.4 | -8.3 | -1,436 | -35.0 | -4.3 | -16,400 | -20.4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일본 측의 국제수지기준으로 본 '19. 9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721억엔으로 전월 대비 273.6%의 급증세를 보였음
 - 이와 같은 對韓직접투자의 9월 중 급증현상은 2018년 9월(778.5%)과 2017년 9월(101.2%)도 있었는데, 그 원인으로 계절성이나 특수성 요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
 - '19. 9월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점하는 對韓직접투자 비율은 2.2%로 전월의 0.4%에서 크게 상승

〈 일본인직접투자 및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추이 〉

| | | 2017 | 2018 | '19 2분기 | '19 3분기 | '19.8월 | '19.9월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신고기준 | 對韓 일본인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 | 1,862 (90.1) | 1,301 (-30.1) | 283 (11.4) | 593 (109.5) | - | - |
| | 전체 對韓 외국인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 | 22,970 (7.8) | 26,901 (17.1) | 1,267 (-60.0) | 3,613 (185.2) | - | - |
| 국제수지기준 |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(억 엔, %) | 4,112 (18.8) | 6,653 (61.8) | - | - | 193 (-25.5) | 721 (273.6) |
| | 일본의 對세계 직접투자 (억 엔, %) | 559,108 (-18.0) | 643,235 (15.0) | - | - | 43,823 (-31.2) | 32,307 (-26.3) |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□ 인적교류

- ‘19. 10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년동월대비 14.4% 감소
 - ‘19. 10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48,541명으로 전월대비 1.0% 감소, 전년동월대비 14.4% 감소
- 반면, ‘19. 10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5.5% 감소
 - ‘19. 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197,300명으로 전월대비 1.9% 감소, 전년동월대비 65.5% 감소
 - 이는 외국인의 전체 일본방문자수의 5.5% 감소에 비하면 매우 큰 폭의 감소인데, 한일관계의 악화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

II. 이달의 일본경제

1. 경기·무역 동향

□ 경기동향지수 상승에도 경기기조 판단은 악화

- 일본내각부가 11월 8일 발표한 9월 경기동향지수(CI, 2015년=100)가 전월보다 2.0 포인트 상승한 101.0을 기록
 -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로 상업판매액이 급증한 것이 지수를 끌어올렸음
 - 그러나 지수의 추이로부터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경기의 기조판단은 2개월 연속 악화
 - 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)는 생산과 소비 등에 관련된 9개 항목의 통계에서 산출되는데, 9월은 7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상승, 특히 소매업과 도매업의 상업판매액이 크게 증가, 지수상승에 기여했음
 - 10월 1일 소비세인상을 전으로 고액의 자동차와 가전, 매점매석이 가능한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가수요가 크게 증가함

- 앞으로 당분간은 약세요인이 남아있기는 하나 고용·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가 있어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- ‘19.9월의 실질소비는 10월 1일 소비세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9.5% 증가
 - 소비세인상에 따른 가수요는 전회 인상시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,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구·가전제품과 리폼 등의 지출이 크게 증가
- ‘19.9월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기계수주액은 전월대비 2.9% 감소
 - 미중무역 마찰로 제조업으로 중심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했기 때문으로, 특히 비철금속과 석유·석탄제품 분야에서 크게 감소
 - 「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」에 의하면, 2019년도 설비투자는 전년도 대비 8.3% 증가할 것이며, 견조한 내수와 일손부족을 반영하여 제조업·비제조업 모두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
 - 「일본은행 단관」(2019년 9월 조사)에서도, 전 산업의 2019년도 설비투자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 일본은행단관에 의한 기업의 설비판단은 전체로는 부족감이 있음
 - 세계경제의 감속우려로 수출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을 고려한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나 일손부족에 따른 생력화 투자는 계속한다는 자세를 보임
- ‘19.9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.4% 증가로 반전
 -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용 반도체제조장치의 생산이 호조를 보임
- ‘19.9월의 완전실업율은 2.4%로 전월보다 6개 만에 0.2%포인트 상승했으나 일손부족으로 기업들의 채용의욕은 강한 편임
 - 완전실업율의 상승요인은 신규 구직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, 이제까지 일하지 않고 있던 인력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음
 - 완전실업자수도 167만명으로 전월보다 13만명 늘었으나 자발적 이직자수도 69만명으로 전월보다 1만명 늘어남

- 유효구인배율은 1.57배로 전월보다 0.02포인트 하락
 - 전체로는 고용상황이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중무역마찰로 일부 제조업에서는 부진조짐이 보임
 - 신규 구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1.5% 감소한 91만 7,174명.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% 감소로 8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등도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
 - 그러나 여전히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은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채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, 생력화 및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음
- '19. 10월의 수출수량은 전월대비 3.9%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
 - 중국으로의 수출수량이 15.2% 증가, 증가폭이 가장 큼
- '19. 10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모두 0.4% 상승에 그침
 - 개인소비의 약세와 미중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가 물가에 부하로 작용
 - 소비세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친 효과는 0.77%에 그친 것으로 시산되고 있어, 일본은행의 목표치 2% 달성에는 아직도 요원함
 -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적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 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 -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 2%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

□ 무역수지 흑자 반전

- '19. 10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173억엔 흑자로 4개월만에 흑자로 반전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4,411억엔 적자에서 2,699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,641억엔에서 5,575억엔으로 흑자폭이 소폭 축소

-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은 수출, 수입 모두 증가된 가운데, 수출의 증가폭이 수입의 증가폭을 크게 상회한데 따른 것임
- ‘19.10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3.1% 증가한 6조 5,774억엔
 -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,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모든 수출의 수출 증가폭이 5.6%로 가장 큼(지표 4)
 - 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4.4%로 가장 큼
 - 주요 국가지역으로의 수출에서는,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·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
 - 유일하게 한국으로의 수출이 5.2% 감소(지표 5)
- ‘19.10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1.5% 증가한 6조 5,601억 엔
 - 5대 수입 품목 역시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, 통신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(지표 6)
 - 의약품의 수입 감소폭이 -9.7%로 가장 큼
 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입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입증가폭이 13.9%로 가장 큰 반면, 수입 감소 품목 중에서는 EU로의 수입 감소폭이 -7.7%로 가장 큼(지표 7)
 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9.0% 증가

〈 2019년 10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〉

| | 2019.9월 | | | 2019.10월 | | | 2019.1-10월 |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
|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기비 |
| 수출 | 6.4 | -5.2 | 4.9 | 6.6 | -9.2 | 3.1 | 63.9 | -5.3 |
| 수입 | 6.5 | -1.5 | 3.2 | 6.6 | -14.8 | 1.5 | 65.4 | -3.8 |
| 수지 | -0.1 | - | -9.8 | 0.02 | - | - | -1.5 | 200.0 |

자료 : 재무성

- ‘19.10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08.1엔으로 전월보다 0.7% 엔저
 - 11월 들어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추이에 따라 리스크가 낮은 통화인 엔화의 對미국 달러 환율이 108엔-109엔대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, 11월 22일 현재 달러당 108엔 61-62전

- 對원화 환율은 100엔당 1,094엔으로 전월대비 2.0% 원고(엔저)
- ‘19.9월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26.3% 감소한 3조 2,307억엔
 -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&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, 2016년 이후 M&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M&A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
 - 일본의 대외 M&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(1)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 M&A의 증가, (2)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, (3)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&A 증가 등을 들 수 있음
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273.6% 증가한 721억엔
- ‘19.9월의 경상수지는 1조 6,129억엔 흑자로 6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 폭은 전월대비 25.2% 축소
 - 무역수지는 흑자폭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해외기업으로부터의 배당 등에 의한 투자 수익과 여행수지는 호조

2. 경제정책

□ 아베 총리,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한 경제대책 책정

- 아베 총리는 11월 8일 각의에서 국토강인화 가속, 미중무역마찰 등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, 소비세인상 이후 소비활성화를 위한 3가지 경제대책을 책정기로 함
 - 재해에 대응하는 현재와, 증세대책이 끝나는 2020년 여름 이후 중기에 대응한 것임
 - 각의에서 결정된 재해대책패키지용 예비절약비 1,316억엔에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, 2020년도 예산을 합쳐 15개월 예산으로 했는데, 15개월 예산의 목적을 복구·부흥의 가속, 해외리스크 대응에 두고 있음
- 이번 대책에서는 생산성향상, 지속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함

- 일본경제는 소득·고용환경 개선이 진전되고 있으나 미중마찰에 의한 중국경제부진 및 소비세 인상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
- 아베 총리가 지시한 경제대책은 ①재해의 복구·부흥과 안정성·안심감 확보, ②경제적 리스크 극복을 꾀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중점지원, ③미래에 대한 투자와 경제력의 유지·향상 등 3가지
- 부흥·복구는 국토강인화를 위한 3개년 집중대책을 착실히 실행하면서 태풍 19호 등으로 인한 수해대책을 중심으로 방재·감재를 추진, 재해대책 패키지 이외에도 지원을 추가해 나가는 것임
-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생산성향상 등 미래에 도전하는 중소기업, 소규모 사업자와 지방경제에 대하여 중점지원. 구체적인 스킬 향상 등 인재 면이나 IT활용, 해외전개 등을 지원
- 미래투자에서는 동경올림픽 이후를 내다 본, 초스마트사회 소사이어티5.0과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(SDGs) 실현을 위한 이노베이션 촉진, 소비활성화를 제시

< 평가 >

- 이번 경제대책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단기대책으로서 자연재해와 미중경제마찰, 소비세 인상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대책과 2020년 올림픽 이후를 내다본 생산성 향상, 이노베이션 창출 등 장기적인 대책으로 구성

□ 새로운 이노베이션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 운용

- 일본 경제산업성·중소기업청과 내각부가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,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(SBIR)의 수정안을 완성함
- 동 제도의 목적을 중소기업의 경영력강화에서 이노베이션 창출로 변경
- 스타트업에 포함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상을 좁혀,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사업화까지 보조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함
- 이노베이션 창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취지를 두고 있음

- SBIR제도의 수정은 1999년 운용개시 이후 처음임
 - 현재는 중소기업의 경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기초하여 운용하고 있음
 -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·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 개정법에 따르는 형태로 운용함
 - 2020년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, 새로운 제도의 관할기관을 중소기업청에서 내각부로 이관함
- 새로운 제도는 중소기업 전반은 아니며,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적으로 한 스타트업을 포함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 - 운용을 위한 통일된 룰을 제정하여, 각 성청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용 특정보조금 등으로 배분하는 지출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음
 - 각 성청이 정책과제에 부합한 테마를 미리 설정, 연구개발형 중소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특정보조금의 틀도 만들
-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지원은 3가지 단계별로 실시함
 - 사업진전과 성과를 검증하고, 다음 단계에 추진하는 기업수를 좁혀나가는 「스테이지게이트」 방식으로 불리는 수법을 도입함
 -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인 제 1단계와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는 제 2단계는 보조금 등을 통하여 지원함
 - 또 사업화에 들어가는 제 3단계에 이른 중소기업에는, 정부조달과 벤처캐피털의 소개 등에 의한 지원을 검토함. 전문지식을 가지고, 연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매니저의 육성도 병행하여 실시
- SBIR제도는 관계 성청이 연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임
 - 미국의 SBIR을 참고하여 1999년에 창설, 일본판 SBIR으로도 불리는데, 일본판은 중소기업의 경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,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진 한편,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이노베이션 창출에는 이르지 못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음
 - 또 중소기업용 지출목표 설정이나 지원방법에도 과제가 적지 않음

< 평가 >

- 이번 개정된 제도는 목적을 중소기업의 경영력 강화라는 막연하고 광범위한 것보다는 이노베이션 창출이라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향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
- 또 스타트업을 포함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상을 좁혀,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사업화까지 보조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한다는 점도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

□ 취직 빙하기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보장기반 확충

- 일본정부가 어려운 고용환경에서 희망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친 소위 취직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을 추진키로 함
- 지자체와 경제단체 등과 연대하여 취로상담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
 - 트위터의 공식 어카운트를 개설, 당사자들에게도 알리기로 함
 - 2020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% 증가한 1,344억엔을 계상
 - 일손부족으로 최대 기회인만큼, 당사자들에게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일본정부는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팽창을 배경으로,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빙하기세대의 정규고용을 3년간 30만명 늘리기로 함
 - 소득향상, 내수확대로 이어지게 하여 사회보장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음
- 버블경제 붕괴 후 IT 불황기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동세대들에게는 비정규 노동자 약 50만명 외에, 장기무직이나 사회부적응자들의 인구가 약 50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최근 동경의 사회부적응자 지원조직을 방문한 전세대사회보장개혁담당상은 본인의 입장이 되어 가능한 한 손길을 뻗치고 싶다고 함
 - 그러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등에 기인하는 사회부적응자에 대하여, 취로목적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함

- 내각관방에 「취업 빙하기세대 지원추진실」을 설치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, 9곳 부처의 담당자 약 30명으로 구성, 지역별로 지원책의 보급·계발의 통괄 등을 임무로 하고 있음
 - 대상자와 그 가족, 고용주의 기업·단체, 지원인력, 유식자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미 이치현과 오사카부 등에서 발족되었음
- 일본정부는 빙하기세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19년도에 1,000억엔의 예산을 마련함
 - 동 세대의 실업자들을 정사원으로 고용한 기업들에게 「특정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」, 「트라이얼 고용 조성금」 등의 시책을 펼치고, 2020년도에는 확충할 계획임
 - 당연히 예산은 필요하나 상담원과 지원자들의 인적자원의 확보·교육에는 담당자의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함
- 한 담당관은 일손이 부족한 지금이 취직사회 진출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
 - 80대(고령자) 부모가 50대(중장년) 자녀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2020년 후반에 걸쳐 급증하는 「8050문제」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50세까지 자립기회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담당자는 말하고 있음
- 2006년부터의 제1차 아베 정권에서는 재도전이라는 명목으로 니트(Net) 및 프리터(‘Free한 아르바이트’의 뜻으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) 대책을 강구했음
 - 그 성공과 실패사례도 검증하면서, 의식이 높은 관계자들 간에서 적어도 정보의 엇갈림, 시책의 미스매칭은 피하고 싶다는 것임

< 시사점 >

- 한국이 20-30대의 청년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다면, 일본은 30대 후반-40대 후반의 중년실업자 문제가 8050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
- 우리나라도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같은 8050문제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

- 일본의 중장년 실업은 1990년대 이후 버블 붕괴와 IT불황에 단초를 두고 있는데, 실업자 중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 못하는 실업자들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음
-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중장년 실업자의 절반가량은 사회부적응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

3. 기업전략

□ 재벌기업간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본 조선업의 제휴(일본경제신문, 2019/11/12)

- 미쓰이 E&S홀딩스(구 미쓰이조선, 본사; 도쿄도 주오구 <https://www.mes.co.jp/>)가 2019년 11월 11일 조선 및 엔지니어링 사업 등의 재편으로 1,000명 규모의 종업원을 배치 전환하는 재건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함
- 적자가 계속되는 조선 사업을 둘러싸고 동사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제휴를 타진했다고 양사의 관계자들이 밝힘
-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기업에서 대형통합이 잇따르고, 국제적인 재편기운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은 뒤늦은 편임
- 구재벌의 울타리를 넘는 재편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
- 미쓰이 E&S 사장은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다액의 손실을 계상하게되어 사과한다고 하고, 주력 기계와 해양개발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고, 적자가 계속되는 발전 플랜트 등의 엔지니어링과, 조선사업은 축소한다는 구상을 발표함
- 동일 발표한 2019년 4-9월기 연결결산은 최종손익이 664억엔 적자를 기록함
- 인도네시아의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으로 손실을 계상한 것이 영향을 미쳐, 2020년 3월기도 880억엔의 최종적자를 기록할 전망
- 3기 연속 최종적자를 기록, 9월말 연결 자기자본 비율은 8.4%로 3월말부터 거의 반감됨
- 건설 계획에서는 플랜트 사업을 하는 미쓰이 E&S플랜트 엔지니어링을 JFE엔지니어링에 매각하는 외에, 태양광발전사업도 매각

- 치바 현에 있는 조선관련 공장도 매각한 후, 리스 계약으로 대체하고,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풍력 및 바이오마스 발전 사업으로부터도 철수함
- 그룹 전체로 1,000명을 배치전환, 이 중 600-700명은 사업매각으로 외부에 보냄
- 이러한 대책으로 금년도 중으로 약 700억엔의 이익을 염출하는 외에, 모든 자본대책을 검토한다고 함
- 동사는 미쓰이물산의 조선부 전신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명문으로, 2018년 현재 사명을 변경하기 전까지 미쓰이조선이라는 사명으로 알려져, 일본 내에서 존재감이 있음
- 그러나 세계 조선업계에서는 2위인 중국조선공업단지(CSSC)와 5위의 중국선박중공업집단(CSIC)가 통합에 합의, 한국도 수위인 현대중공업과 3위의 대우조선해양이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음
- 일본은 10개사 이상의 업체들이 난립해 있음
-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사업인 조선사업이 현안인 가운데, 당시 미쓰이조선은 가와사키중공업과 경영통합 교섭한 적도 있으나, 2013년 중단. 쓰네이시(常石)조선과 중국의 양자강선업과 제휴해 왔음
- 그러나 조선은 2019년 3월기 부문 영업 손익이 81억엔 적자로 되는 등 부진함에 따라,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
- 미쓰이 E&S 사장은 조선 사업에 관하여 국내외 협업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하고, 이미 물밑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제휴를 타진했음
- 먼저 방위성으로부터 수주한 해상자위대의 함선 등에 관하여 미쓰이·미쓰비시가 공동으로 수주하는 체제로 전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각 조선소와 조정에 들어감
- 수상함은 현재 양사와 저팬마린유나이티드의 일본 3사가 생산하는 체제인데, 제휴가 실현되면 실질적으로 2사체제로 집약됨
- 그러나 일본 내 조선소 수는 유지, 미쓰이 디마노(玉野)공장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선종별로 생산하는 형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
- 미쓰이 E&S는 민간용 상선에 관하여 설계부문을 독립 운영시킬 방침도 보임

< 평가 >

- 일본의 재벌계에서는 과거 미쓰이와 스미토모가 은행과 보험회사, 건설 등에서 제후를 추진해왔으나, 미쓰이 및 미쓰비시의 조합은 사례가 거의 없음
- 드디어 이번에 미쓰이와 미쓰비시라는 일본 구 재벌의 2대 산맥을 뛰어넘는 조합과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

□ 일본 자동차업체의 미얀마 시장 쟁탈전(일본경제신문, 2019/11/2)

-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미얀마 진출이 잇따르고 있음
 - 도요타자동차는 11월 1일 2021년 조업예정인 신차 조립공장 건설을 시작함
 -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대형 업체들의 세력판도가 거의 굳혀져, 약 5천만명 인구의 미얀마는 성장이 전망되는 최후의 대형시장임
 - 스즈키와 한국 현대자동차 등 대형 6개사가 거느리는 구도로 장래는 수출거점이 될 가능성도 숨겨져 있음
 - 현지생산을 통하여 고품질 자동차를 적시에 공급 하겠다는 각사의 포부임
- 도요타자동차의 투자액은 5,260만달러. 2021년 2월 조업을 개시, 먼저 픽업트럭인 하이락스를 생산할 계획임
 - 현지 진출에서 선행하고 있는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초는 세밀한 공정을 마친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만 하는 세미녹다운(semi-knockdown) 방식의 공장으로 하려했음
 - 미얀마 진출에 의해 도요타는 동남아시아의 현지생산에서 최후의 주자가 되는 셈임
- 현재 미얀마의 자동차산업은 맹아기에 있음
 - 2011년 자유화 이후 일본으로부터 중고차를 대량 수입해 왔으나, 미얀마 정부는 근년 수입을 억제, 메이커들에게 현지생산을 촉구하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음
 - 미얀마에서 신차를 수입하는 경우, 현지 생산차에는 면제되는 등록세가 가격의 5-120% 부과됨. 2018년에는 오른쪽 핸들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, 일본으로부터 중고차의 수출은 피크시의 절반이하로 감소함

- 이 결과 중고차가 급감하는 반면, 2018년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대비 2.1배인 17,500대로 증가. 태국의 약 104만대, 베트남의 약 28만대에 비하면 아직 적은 규모이나 현재 미얀마의 시장규모는 10년 전의 베트남과 유사함
- 가까운 장래 베트남과 같이 현지생산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동남아시아의 2대 자동차 시장인 태국, 인도네시아는 도요타가 함께 30% 이상의 점유율로 수위를 점하고 있음
- 이어 혼다와 이스즈 자동차 등 일본계 업체들이 10%대를 유지하고 있음
- 동남아시아 시장은 일본기업들에게 달러박스이나 미얀마만은 이제부터임
- 인도에서도 먼저 성공한 스즈키와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2013년 현지 생산을 개시, 닛산자동차와 미국의 포드모터가 뒤따르고 있음
- 2019년 2월에는 현대자동차도 조립 공장을 가동, 6번째로 도요타가 진출. 중고차에서 도요타자동차는 압도적인 브랜드력을 자랑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선행 업체들과 치열한 점유율경쟁이 될 것으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음
- 도요타 등 진출한 자동차업체들은 생산대수가 증가하면 용접이나 도장 등의 작업을 현지로 이전하는 구상을 하고 있음
- 미얀마는 유망한 시장인 동시에 장래 수출거점으로 육성될 가능성도 숨겨져 있음
- 연간 약 100만대를 수출, 자동차산업의 서플라이체인 구축이 끝난 인근 태국과는 JICA 등이 지원하는 도로정비 프로젝트 「동서경제회랑」에서 앞으로 육로가 정비될 계획임
- 진행 중인 개수공사가 완성되면, 양곤-방콕 간을 트럭으로 최단 하루만에 수송할 수 있을 전망이다
- 도요타는 태국의 공장을 미얀마의 조립공장에 기술과 기능의 이전센터로 하는 머더 공장(모공장)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- 종래 도요타에서는 해외공장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의 생산거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해외이전은 최초의 시도임

- 야자키중업(矢崎総業; 도쿄도 미나토구, www.yazaki-group.com)이 2019년 11월말 와이어 하네스공장을 가동할 계획 등은 있으나, 미얀마에서의 부품 산업 집적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며, 또 태국에서는 근년 노동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
- 태국 공장과의 기술제휴나 부품업체들의 진출이 진행된다면, 장래는 미얀마가 코스트 경쟁력이 높은 수출거점으로서 제 2의 태국의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음
- 5,000만명 이상의 인구 규모와 경제정책의 진전 등을 생각하면, 현지생산이 최적이라고 도요타는 강조함
- 바야흐로 동남아시아 최후의 대형시장을 둘러싸고 자동차 업체들 간 경쟁이 열을 띄고 있음

< 시사점 >

- 태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에서 일본의 6개 자동차 업체들 간 현지 진출 및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예상됨
- 나아가 조성되기 시작한 한-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교두보로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체들도 머지않아 미얀마시장에서 일본업체들과의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됨

4. 산업기술

□ 도로포장에서 태양광 발전(일본경제신문, 2019/11/13)

- 잠자는 자산으로 알려진 도로에 최첨기술을 실장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
- 일본의 신흥기업인 MIRAI-LABO(본사; 도쿄도 하치오지시, <http://www.mirai-lab.com/>)가 태양광 패널을 장비한 도로포장을 개발
- 중일본고속도로는 도로에 매장한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운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발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
- 자동차의 전동화 등 CASE의 보급을 노려, 총 연장 128만km에 이르는 도로의 가치 발굴을 본격화함

- 2006년 설립한 MIRAI-LABO는 비상용 전원 등 에너지절약 기기분야에 관여, 전국의 경찰과 지자체에 판매하고 있는 신흥기업임
 - 이번에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도로포장 솔라모비웨이를 개발, 태양광 패널을 특수한 수지로 깔은 도로의 포장재 대신에 사용
 - 현재 도로포장업체 NIPPO와 성능시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통상 태양광 패널은 충격에 약해 깨지기 쉬운데, 이번 MIRAI-LABO는 유연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충격에 강한 패널을 사용했음
 - 포장 면에 패널이 노출되고 있으면 자동차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노면에 마모되기도 하는데,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라믹조각을 섞은 투명한 수지로 패널을 덮음
- 건물 옥상 등의 태양광 패널은 빛의 각도가 얇으면 발전효율이 떨어지는데, 개발한 포장재는 세라믹이 태양광의 각도를 바꾸어 1일 발전량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함
 - 전기는 땅속의 전선을 통하여 축전지에 저장하며, 전기자동차 등에서 사용한 배터리의 재이용도 상정하고 있음
- 현재 일본에는 총연장 128만km의 도로가 있는데, 자동차와 사람의 이동용도가 중심인 잠자고 있는 자산임
 - MIRAI-LABO 사장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절반을 발전형 포장으로 하면 전체 일본 소비전력의 16.5%를 충당할 수 있다는 시산결과를 내놓음
- MIRAI-LABO가 노리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전동화와 자동운전 등 CASE의 본격적인 도래임
 - 발전된 전력은 가로등과 도로표시판에 더하여 장래는 주행 중인 EV(전기차)에의 무선 충전이나, 자동운전에 필요한 도로상황에 관한 데이터통신 전력으로의 활용을 상정하고 있음
 - 정전으로 자동운전차에 정보를 보낼 수 없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, 전원을 도로에 비축하는 장점이 큼

- 도로를 발전기지로 하는 이점은 그밖에도 많음
 - 평지가 적은 일본에서는 산림을 벌채하여 패널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, 도로를 활용하면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음
 - 재해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패널로 발전하면 신호나 가로등을 유지할 수 있음. 재생에너지의 발송량이 문제로 되는 있는 바, 도로에서의 발전은 지산지소로도 이어짐
- 일본의 도로는 노후화되어 있어, 앞으로 대규모 개수시기를 맞게 됨
 - 일본 국토교통성의 시산으로는 앞으로 30년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연간 2조엔 이상의 공사가 필요함
 - 노후화대책의 시기가 CASE의 큰 흐름과 겹쳐지기 때문에 도로에 최신 기술을 매장하는 기술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중일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에 센서와 카메라를 정비할 계획인데, 이미 도메이(東名)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 지자기센서를 매장, 정체정보 등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음
 - 앞으로 정밀도가 높은 카메라를 짧은 간격으로 설치, 도로의 운행상황을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게 됨.
 - 동사는 관할하는 도로의 약 60%를 건설한지 30년이 경과, 2020년도부터 수도권의 주요도로가 개수시기를 맞는다고 함
 - 차세대통신규격 5G가 실용화되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어, 자동운전 차량의 데이터송신 등 도로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됨
- 한편, 대성건설은 도요하시 기술과학대학과 공동으로 자동운전차(EV)의 무선 급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
 - 지면에 전극을 부설하여 수전장치를 준비한 EV가 위를 달리면 전기가 보내짐
- 타이어 업체인 브리지스톤도 동경대학과 공동으로 타이어를 통하여 도로에서 충전하는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음
 - 도로에서 급전할 수 있으면 탑재하는 배터리량을 줄여 차체의 경량화로 이어짐

- 보급을 위한 과제는 비용임
 - MIRAI-LABO가 시험을 추진하는 발전형 포장재는 아직 가격을 설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, 대폭적인 비용증가는 피할 수 없음
 - 생산규모의 확대에 의한 코스트 절감과 도로의 부가가치 향상에 의한 새로운 수익 모델 구축이 필요하게 됨
- 해외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CASE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어, 앞으로는 국제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
 - 예를 들면, 도로에서의 태양광발전은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, 현지점에서 명확한 성공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함

< 시사점 >

- 전기자동차가 고속주행하면서도 무선 충전하는 도로가 생기고, 차량이 통행하면서 도로에 전기에너지를 생산·저장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실현되고 있음
- 이 배후에는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

□ 경제산업성, 재생에너지의 코스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전지 해금(일본경제신문 2019/11/4)

-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축전지에 경제산업성이 승부수를 던짐
 - 인증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가정용분야에서 일본업체의 반액으로 압도적으로 저렴한 미국 테슬라의 제품을 해금하기로 함
 - 재생에너지 보급을 서두르는 목적이 분명하나 저가 외제품의 수입에 의해 국내업체의 코스트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혹도 엿보임
- 10월 15일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미국 테슬라의 쇼룸에서 2020년 봄에 발매하는 가정용 축전지 「파워월」의 발표이벤트에서 테슬라 측의 에너지 부문 대표가 경쟁력이 높은 가격이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임
 - 동 축전지는 저가격을 무기로 세계에서 누계판매가 5만을 넘고 있음. 일본에서의 가격은 13.4kW/h로 99만엔, 1kW/h 환산으로 7만엔 정도로 일본제의 평균 18만엔을 크게 하회

- 이 정도의 가격은 이 분야에서 선행한 일본의 파나소닉과 샤프를 위협할 만한 수준
- 이 시기에 테슬라가 이름을 올리게 된 최대요인은 태양광 발전의 적용 기간이 FIT(고정 가격매수제도)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가정이 11월부터 나오기 때문임
- FIT를 졸업한 가정은 전력을 종래만큼 높게 팔수 없음. 이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를 위해 비축하는 축전지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
- 물론 일본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음
- 전력망으로부터 자립하여 운전하는 기술 등에 관련하여, 테슬라방식으로는 전기 제품의 안전을 검사하는 전기안전환경연구소(JET)의 인증을 얻을 수가 없어, 사실상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임
-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민당원의 일부가 경산성에 대응을 요구, JET에 영향력을 가진 경산성에서도 해금하면 축전기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
- JET는 7월에 인증제도를 개정, 테슬라의 판매에 길을 열었음
- 자민당과 경산성은 국내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, 일본만 저렴한 축전지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고 관계자는 말함
- 일본제는 외국제보다 고가로서 일본제품에 있기 쉬운 과잉품질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다, 메이커가 도매업자에 판매를 의뢰, 유통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
- 미쓰비시중합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, 설비관계비용이 1kW/h 15만엔의 축전 시스템으로 도매업자 등에 지불하는 유통비는 17만엔이나 소요됨
- 이에 비해 테슬라는 인터넷에서의 직판으로 유통비를 절감
- 경산성은 여기서 손을 대지 않으면 되찾기가 어려워진다고 위기감을 보이면서, 저렴한 테슬라 제품으로 일본 메이커를 자극, 코스트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게 할 생각임
-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는 일본의 산업계에 쓰라린 기억이 있음

-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중반까지 샤프, 교세라 등 일본업체가 세계시장의 상위권에 있었으나 중국업체 등의 공세에 대항하지 못해, 눈 깜짝할 사이에 존재감을 잃었음
- 축전지에 사용하는 리튬전지는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요시노 교수(메이조대학) 등 일본 연구자들과 기업이 기술개발의 선두에 있어왔는데, 그 전지도 차대용 분야에서 수위인 CATL 등 중국세가 대두, 일본의 축전지시장을 노리고 있음
- 일본업체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
- 축전지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인 에리파워사 관계자는 일본제는 높은 안전성과 긴 수명, 원격감시에 의한 충실한 보증 면에서 외국제품에 앞서고 있다고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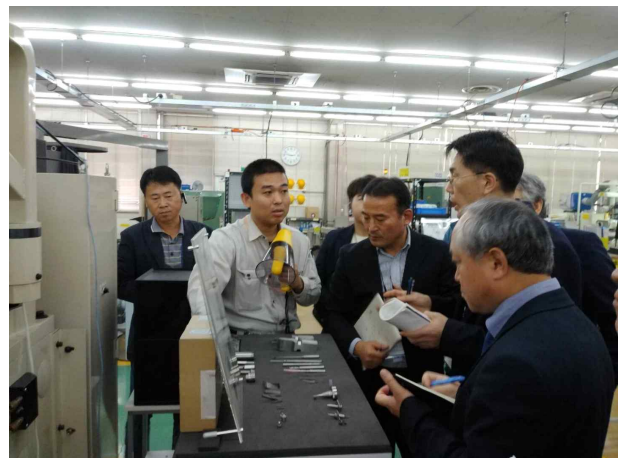
< 시사점 >

- 일본은 2019년 11월부터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제도(현재 FIT로 이행)의 매입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10kW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, 이들을 중심으로 일본 축전지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
- 이번 경산성의 경쟁력 있는 테슬라 제품에 대한 해금 조치는 축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,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대응보다는 테슬라 제품의 수입을 해금하여 일본산 축전지의 경쟁력 강화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임
- 그러나 이와 같은 경산성의 승부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가, 「FIT 졸업」으로 가정용전력 쟁탈을 앞두고 주목됨

III. KJCF & KJE News

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및 행사 결과

○ “2019 일본 모노즈쿠리 IoT연수”



내 용 : IoT 도입전략 및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강의, IoT활용 우수기업 현장견학,
 토포론(IoT 기술의 자사적용 방안) 등

장 소 : 일본 미야기현 지역

3차 일시 : 2019. 10. 28(월) ~ 11. 1(금)

4차 일시 : 2019. 11. 11(월) ~ 11. 15(금)

○ “한일경제관계 개선 세미나” 개최



일 시 : 2019. 11. 18(월) 9:30~12:00

장 소 : 롯데호텔서울 36층

주 제 : 한일경제전문가 진단, 한일관계 현황 및 개선 대응

참가규모 : 한일 양국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

Ⅳ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『최근의 현대통화이론에 비추어본 일본의 재정금융정책』 2019-10-30

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○ 『사용이 끝난 소형 전자기기 등의 재자원화 사업조사』 경제산업성, ‘19.11.20

https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30FY/000291.pdf

○ 『선진기업의 자연에너지 이용계획』 자연에너지재단 ‘19.11.20

https://www.renewable-ei.org/pdfdownload/activities/CorpCS_RICOH_201911.pdf

○ 『엔저의 산업연관표 분석』 일본경제연구센터, ‘19.11.29

https://www.jcer.or.jp/jcer_download_log.php?post_id=55288&file_post_id=55335

○ 『제조업에서 enabler의 대두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‘19.11.19

https://www.nri.com/-/media/Corporate/jp/Files/PDF/knowledge/publication/region/2019/11/1_vol196.pdf?la=ja-JP&hash=0972A940B299777DC559BACCD20E134DDB0F372E

○ 『일본의 대한수출관리 강화를 계기로 한국의 탈일본은 진행될 것인가』 일본종합연구소, ‘19.11.16

<https://www.jri.co.jp/page.jsp?id=35328>

V. 한일경제지표

1) 2019년 10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| 순 위 | 품목명 | 2019.9월 | | | 2019.10월 | | | 2019.1-10월 |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
| |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기비 |
| | 총계 | 2,321 | -6.0 | 3.1 | 2,380 | -13.9 | 2.5 | 23,723 | -6.6 |
| 1 | 철강제품 | 310 | -0.5 | -8.3 | 349 | -1.3 | 12.6 | 3,464 | 2.1 |
| 2 | 광물성연료 | 348 | -36.5 | 11.9 | 331 | -46.1 | -4.9 | 3,550 | -17.0 |
| 3 | 정밀화학제품 | 177 | 13.7 | 4.2 | 157 | -15.9 | -11.3 | 1,714 | 1.2 |
| 4 | 전자부품 | 164 | 5.3 | 20.6 | 144 | -13.8 | -12.2 | 1,458 | -6.0 |
| 5 | 산업용전자제품 | 135 | 43.6 | 13.4 | 129 | 2.0 | -4.4 | 1,127 | -8.7 |
| 6 | 석유화학제품 | 105 | -40.0 | -14.6 | 116 | -26.5 | 10.5 | 1,259 | -31.8 |
| 7 | 수송기계 | 99 | -13.5 | 7.6 | 109 | -3.0 | 10.1 | 1,054 | -9.0 |
| 8 | 농산물 | 98 | 21.5 | -3.9 | 107 | 21.1 | 9.2 | 1,000 | 9.3 |
| 9 | 기계요소공구금형 | 94 | 17.2 | 2.2 | 107 | 15.8 | 13.8 | 938 | 7.7 |
| 10 | 산업기계 | 73 | -6.4 | -1.4 | 81 | 5.2 | 11.0 | 799 | 5.0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) 2019년 10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| 순 위 | 품목명 | 2019.9월 | | | 2019.10월 | | | 2019.1-10월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
| |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기비 |
| | 총 계 | 3,821 | -8.6 | -1.7 | 3,816 | -23.3 | -0.1 | 40,123 | -12.8 |
| 1 | 전자부품 | 593 | 9.5 | 11.3 | 590 | -3.2 | -0.5 | 5,242 | -2.9 |
| 2 | 철강제품 | 508 | 2.2 | 6.9 | 533 | -10.4 | 4.9 | 5,387 | -4.9 |
| 3 | 정밀화학제품 | 374 | -1.1 | -6.3 | 374 | -20.0 | 0.0 | 3,843 | -4.5 |
| 4 | 정밀기계 | 275 | -42.8 | -2.8 | 242 | -56.2 | -12.0 | 3,156 | -48.1 |
| 5 | 석유화학제품 | 266 | -24.8 | -8.9 | 236 | -37.0 | -11.3 | 3,086 | -8.2 |
| 6 | 산업용전자제품 | 217 | -12.2 | -5.7 | 241 | -10.3 | 11.1 | 2,331 | -14.0 |
| 7 | 플라스틱제품 | 200 | 16.2 | -8.9 | 181 | -11.8 | -9.5 | 1,883 | 1.3 |
| 8 | 기초산업기계 | 186 | -4.5 | 6.3 | 177 | -23.2 | -4.9 | 1,905 | -18.1 |
| 9 | 수송기계 | 179 | -14.3 | -5.8 | 178 | -46.9 | -0.6 | 2,231 | -4.3 |
| 10 | 산업기계 | 137 | -18.6 | -2.9 | 149 | -27.1 | 8.8 | 1,744 | -5.2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| 구 분 | | 2018 | 2018 | | 2019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| 3/4 | 4/4 | 2/4 | 3/4 | 8월 | 9월 |
| GDP증가률 (실질, 연율, %) | | 0.7 | -2.6 | 1.9 | 1.3p) | - | - | - |
| 경기동향지수 (2010년 = 100) | | - | - | - | - | - | 99.3 | 101.0 |
| 광공업생산증가률 (전기비, %) | | 1.0 | -1.3 | 1.9 | 0.6 | - | -1.2 | 1.4 |
| 실질소비증가률 (전년비, %) | | 0.4 | -0.2 | 0.6 | 2.6 | - | 1.0 | 9.5 |
| 기계수주액증가률 (전기비, %) | | 3.6 | 0.9 | -4.2 | 7.5 | - | -2.4 | -2.9 |
| 소비자물가 상승률(%) | 전기비 | 1.0 | 0.3 | 0.2 | 0.0 | - | -0.1 | -0.1 |
| | 전년비 | 1.0 | 0.9 | 0.9 | 0.8 | - | 0.3 | 0.3 |
| 실업률(%) | | 2.4 | 2.4 | 2.4 | 2.4 | - | 2.2 | 2.4 |
| 수출액(조엔) | | 81.5 | 20.1 | 21.1 | 19.1 | 18.6 | 6.1 | 6.4 |
| 수입액(조엔) | | 82.7 | 20.7 | 22.5 | 19.4 | 19.0 | 6.2 | 6.5 |
| 무역수지(조엔) | | -1.2 | -0.6 | -1.3 | -0.3 | -0.4 | -0.1 | -0.1 |
| 경상수지(조엔) | | 19.0 | 5.6 | 2.6 | 4.5 | - | 2.2 | 1.6 |
| 해외직접투자(조엔)* | | 64.2 | 13.7 | 15.0 | 11.9 | - | 4.4 | 3.2 |
| 환율 | 달러 | 110.4 | 111.5 | 112.9 | 109.9 | 107.3 | 106.3 | 107.4 |
| | 원화(100엔) | 996 | 1,007 | 999 | 1,062 | 1113 | 1,137 | 1,116 |
| 금리(10년물, %) | | 0.071 | 0.098 | 0.076 | -0.091 | -0.201 | -0.231 | -0.233 |
| 주가(닛케이, 엔) | | 22,310 | 22,654 | 65,691 | 21,414 | 21,270 | 20,630 | 21,585 |
| | | | | | | | | 22,197 |

주: p)는 개정치)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

4) 2019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 엔, %)

| 순위 | 품목 | 2019.9월 | | | 2019.10월 | | | 2019.1-10월 |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
| |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기비 |
| 1 | 자동차 | 9,868 | -1.8 | 13.6 | 10,267 | -9.6 | -3.9 | 99,654 | -1.3 |
| 2 | 반도체 등 전자부품 | 3,660 | 4.0 | 2.0 | 3,866 | 0.6 | 5.6 | 32,962 | 7.0 |
| 3 | 자동차부품 | 2,982 | -14.7 | 8.6 | 3,052 | -11.3 | 2.3 | 29,847 | -9.7 |
| 4 | 철강 | 2,640 | -0.4 | 1.5 | 2,525 | -16.7 | -4.4 | 25,836 | -9.6 |
| 5 | 원동기 | 2,204 | -13.1 | 6.0 | 2,164 | -20.9 | -1.8 | 22,704 | -9.7 |

자료 : 일본 재무성

5) 2019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| 순위 | 국가 | 2019.9월 | | | 2019.10월 | | | 2019.1-10월 |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
| |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기비 |
| 1 | 중국 | 11,771 | -6.7 | -2.0 | 13,230 | -10.3 | 12.4 | 119,593 | -8.8 |
| 2 | 미국 | 11,874 | -7.9 | -0.3 | 12,676 | -11.4 | 6.8 | 128,126 | 13.3 |
| 3 | ASEAN | 9,892 | -6.9 | 5.9 | 9,902 | -11.1 | 0.1 | 96,094 | -8.0 |
| 4 | EU | 7,289 | -0.4 | 2.8 | 7,436 | -8.4 | 2.0 | 75,134 | -1.7 |
| 5 | 한국 | 4,028 | -15.9 | -4.7 | 3,819 | -23.1 | -5.2 | 42,523 | -12.2 |
| 6 | 대만 | 4,008 | 0.8 | 10.1 | 4,145 | 1.4 | 3.4 | 37,814 | -2.7 |

자료 : 일본 재무성

6) 2019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| 순위 | 품목 | 2019.9월 | | | 2019.10월 | | | 2019-10월 | |
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
| |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기비 |
| 1 | 원유 | 6,064 | -16.1 | -10.0 | 5,935 | -22.7 | -2.1 | 65,704 | -8.3 |
| 2 | 액화천연가스 | 3,410 | -11.7 | -0.3 | 3,305 | -20.9 | -3.1 | 36,573 | -5.1 |
| 3 | 통신기 | 2,968 | -2.3 | 86.2 | 3,218 | -18.8 | 8.4 | 23,081 | -6.2 |
| 4 | 의류·동부속품 | 3,251 | -4.7 | 1.6 | 3,093 | -14.9 | -4.9 | 27,101 | -2.9 |
| 5 | 의약품 | 2,851 | 44.2 | 13.6 | 2,575 | -9.0 | -9.7 | 26,159 | 6.1 |

자료 : 일본 재무성

7) 2019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| 순위 | 국가 | 2019.9월 | | | 2019.10월 | | | 2019.1-10월 |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 | 금액 | 증가률 |
| |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월비 | 전월비 | | 전년 동기비 |
| 1 | 중국 | 16,181 | -1.0 | 14.2 | 15,929 | -15.4 | -1.6 | 153,234 | -2.4 |
| 2 | ASEAN | 9,598 | 3.3 | 3.6 | 10,208 | -13.4 | 6.4 | 98,195 | -4.4 |
| 3 | EU | 8,562 | 13.2 | 8.6 | 7,900 | -10.8 | -7.7 | 80,729 | 0.5 |
| 4 | 미국 | 6,233 | -11.6 | -13.3 | 7,101 | -17.2 | 13.9 | 71,806 | -2.3 |
| 5 | 호주 | 4,163 | -3.3 | -1.5 | 3,970 | -10.5 | -4.6 | 41,826 | 0.4 |
| 7 | 한국 | 2,513 | -8.9 | 4.6 | 2,738 | -12.0 | 9.0 | 26,639 | -8.4 |

자료 : 일본 재무성